

설명자료

배포일시	2021. 1. 15.(금) 17:00 (총 6매)		보도시점	즉 시	
담당부서	수도권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박종찬 전문관 이동희	전화번호	031-8025-5031

월요일 출근길 많은 눈, 눈길·빙판길 조심

- 17일 저녁~18일 수도권 많은 눈, 폭설 주의
 - 경기동부 5~10cm, 그 밖의 수도권 지역 2~7cm
 - 17일 밤부터 18일 오전 사이 강한 눈, 눈길·빙판길 조심
- 주말(16~17일) 또 다시 강추위, 강풍으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
 - 경기내륙 중심 아침 최저기온 -10℃ 이하
 - 수도권·계량기 동파 등 시설물 피해와 한랭 질환에 대비 필요



[1월 17일(일) 오후 예상기압계 모식도]

- 수도권기상청(청장 김성균)은 이번 주말(16~17일)동안 수도권에 강추위가 찾아오고 17일(일) 저녁~18일(월)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였다. 특히, 18일은 출근 시간에도 눈이 내리는 곳이 많으며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.

[기압계 전망]

- 수도권기상청은 16(토)~18일(월)에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서쪽의 온난한 공기가 순차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하였다. 이 과정에서 눈 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수도권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.
- 15일(금) 밤부터 몽골 부근의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로 강하게 유입되면서 기온이 급격히 낮아져 16일(토)~17일(일)에는 추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.
- 17일 오후~18일에 찬 공기의 유입이 약해지면서 서쪽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불어들겠고, 이 따뜻한 공기가 기존(15일 밤~17일 오전)에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던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눈 구름대가 발달하겠다.
- 특히, 18일 오전에는 북서쪽에서부터 유입되는 찬 공기에 의해 눈 구름대가 더욱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.
- 이러한 기압계 변화가 짧은 기간에 이뤄지면서 16~18일은 날씨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, 기상정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.

[17일 저녁~18일 눈 전망]

□ 17일 저녁~18일에 수도권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였다.

- 17일 오후부터 서쪽에서 온난한 공기가 불어들면서 해상의 눈 구름대가 유입되어, 저녁에 서해안부터 눈이 시작되겠고 밤에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겠다.
- 18일 오전에 북서쪽에서부터 찬 공기가 빠르게 남하하면서 눈 구름대가 더욱 발달하겠으며, 눈 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오후에 서쪽지역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여 밤에는 눈이 모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.

□ 특히, 17일 밤~18일 오전에 강한 바람이 지형과 부딪히면서 눈 구름대가 더욱 발달하는 경기동부를 중심으로 최대 10cm 내외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분석했다.

- 수도권기상청 예보관은 “월요일 출근길에는 눈이 강하게 내리거나 밤부터 쌓여있던 눈으로 인해 미끄러운 지역이 많겠다.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
<예상 적설, 17일 저녁(18시)~18일 오후(18시)>

- 경기동부: 5~10cm
- 수도권(경기동부 제외), 서해5도: 2~7cm

- 또한, 수도권기상청은 “최근 들어 우리나라 주변의 온도 변화가 평년보다 큰 상황”이라며, 매우 차가운 공기가 지배한 상황에서 온난한 공기가 불어드는 형태가 반복되면서 수도권에 강한 눈 구름대가 자주 발달하고 있다고 밝혔다.

- 17~18일에도 1.5km 상공의 온난한 바람이 강하게 불어드는 지역을 중심으로 눈의 양이 많아지고, 바람이 지형에 부딪히는 곳을 중심으로 눈 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인접한 지역 사이에서도 눈의 강도와 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.

- 특히, 18일 새벽~낮에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강도에 따라 눈 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는 지역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주말에 계속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통해 최신의 예상적설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.

[추위 전망]

- 오늘(15일) 밤부터 기온이 점차 낮아지면서 16일은 수도권의 아침 최저기온이 15일보다 5~10℃ 가량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, 찬 공기의 유입 강도가 점차 강해지면서 경기내륙을 중심으로 주말 동안 아침 최저기온이 -10℃ 이하로 떨어져 추운 곳이 많겠다고 밝혔다.
- 특히, 16일 오후에는 수도권의 낮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겠고, 17일 아침에는 복사냉각으로 경기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기온이 -10℃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였다.
- 또한, 16~17일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하는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10℃ 가량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한랭 질환 예방 등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.
- 18일은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르겠지만 밤부터 북쪽의 찬 공기가 한 차례 더 유입되면서 수도권은 20일(수) 오전까지도 아침 최저기온이 -10℃ 이하로 떨어져 추울 것으로 전망하면서,
 - 수도권과 계랑기를 보온재로 감싸는 등 동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.

[강풍과 풍랑 전망]

- (강풍) 오늘(15일) 밤부터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(초속 7~10m, 시속 25~35km)이 불고, 내륙에서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.
- 찬 공기의 유입이 다소 약해짐에 따라 17일 오후~18일 오전에 바람이 일시적으로 약해지겠지만 이후 북서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다시 남하하며 바람이 강해지기 때문에 20일까지도 강풍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.
- (풍랑) 오늘(15일)부터 17일 오전까지 서해중부면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2~4m로 높게 일겠고, 인천·경기앞바다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하였다.
- 17일 오후에 서해중부해상에서 물결이 일시적으로 잔잔해지겠지만 이후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아질 수 있겠다며 해상안전에 지속적으로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.